

규범과 욕망의 틈새

- 조선시대 소설 속의 섹슈얼리티

서지영*

<차 례>

1. 담론 속의 성, 재현의 진실
2. 쾌락의 활용: 조선시대 '예(禮)'와 욕망의 공식
3. 조선 전·중기 애정서사의 역사성
4. 조선후기, 에로티시즘으로의 도피
5. 섹슈얼리티의 이중기제와 조선후기 욕망의 지형도

<국문초록>

인간의 삶 속에서 에로스의 추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욕망 가운데 하나이다. 동양 문화 전통에서도 남녀 간의 이상적 만남의 원형으로 '풍류재자'와 '요조숙녀'의 만남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의 이상적 원형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는 양식은 역사적으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각 시대를 구성하는 이념적·사회적 기제가 인간의 에로스의 발현에 깊이 관여하는 점에서 연유한다. 조선시대의 경우, 남녀의 본연적 욕망을 대변하는 섹슈얼리티는 유교의 금욕주의적 성격에 의해 억압되어 온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당대 소설과 같은 허구적 담론 양식 속에는 유교의 외적 규범을 뚫고 발현된 당대인의 욕망의 흔적들이 무수히 발견된다. 본고에서는 조선 전기·중기·후기의 애정 서사를 통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전근대 사회 기제가 양산한 성애와 혼인제도의 관계망을 밝히고, 나아가 각 시기의 욕망의 형식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탐색한다.

주제어 욕망, 혼인, 섹슈얼리티, 유교 이념, 기녀, 판타지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

1. 담론 속의 성, 재현의 진실

인류 문명의 역사는 성의 억압의 역사였음을 단언했던 프로이트(1856-1939) 이후의 ‘억압가설’은 지금까지 성을 바라보는 가장 일반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서유럽의 성의 계보를 재구성한 미셸 푸코는 이러한 억압과 종속이라는 단순 구도로 설명할 수 없는 제도 권력과 섹슈얼리티의 다층적인 관계망을 드러내었다.¹⁾ 특히 그는 역사적으로 성은 결코 침묵된 적이 없으며 다만 다르게 말해졌을 뿐이라는 언급을 통해, 시대마다 권력이 어떻게 성을 ‘다른 방식으로’ 담론화해 왔는지를 문제 제기하였다. 이러한 권력과 성이 갖는 복잡다단한 관계 및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에 주목한 푸코의 시각을 원용한다면, 성과 관련하여 금욕주의적 형태를 취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섹슈얼리티는 어떻게 논의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한국 문학 및 문화사 일반에서 조선시대 유교는 중세 사회의 수직적 권력의 기반으로 인간의 본능적 욕망을 억압한 봉건적 이데올로기로 논의되어왔다.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일반화되어 온 유교 속의 성에 대한 우리의 ‘억압가설’이 당대의 고유한 형식 속에서 욕망에 대한 무수한 담론을 양산한 조선시대 문화의 심층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은 아니었는지 문제 제기할 만하다. ‘유교=욕망의 억압’이라는 고정된 공식을 넘어서, 규범과 욕망이 충돌하는 틈새로 빠져나와 윤리의 그물로부터 이탈하거나, 재현의 정치학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섹슈얼리티의 실재를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인간의 근원적 욕망을 가장 민감하게 그려내는 문학(소설)은 유교 공식담론의 주변부에서 허구의 장치를 통해 조선시대 ‘섹슈얼리티’, 즉 성에 대한 생각과 일상적·제도적 관행, 성을 바라보는 의식과 무의식, 욕망과 실제의 간극

1) 미셸 푸코, 『성의 역사 I -삶의 의지』, 이규현 역, 나남, 1990, 35-53쪽.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어 주목된다.²⁾ 따라서 본 연구는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룬 소설 속에 구현되는 사랑-섹슈얼리티-혼인의 고리에 주목함으로써 조선시대 에로스의 공식이 가지는 의미들을 문학 외부의 사회사적 시각에서 탐색해보고자 한다.

한편, 조선시대 섹슈얼리티의 발현 및 쾌락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당대의 욕망의 형식을 가능케 한 사회적·역사적 지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또한 지적할 만하다. 문학(소설) 속에 재현되는 욕망의 표출은 초역사적인 인간 보편의 자질이면서, 특정 시대의 사회적 산물이자 삶의 형식을 반영하는 역사적 현상이기도 하다.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조선시대에 양산된 애정서사에는 특유의 욕망의 문법이 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내에서도 성애를 둘러싼 욕망의 발현 문제는 시간의 추이에 따라 역동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애정서사의 개별 작품론이나 세세한 텍스트 분석을 시도하기보다는, 유교의 틀 속에서 쾌락이 발현되는 양상과 욕망의 사회적 관계망을 전기-중기-후기로 이어지는 통시적 흐름을 통해 살피고, 각 시대의 애정서사가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쾌락의 활용: 조선시대 ‘예(禮)’와 욕망의 공식

<논어>에 “어진 이를 어질게 여기기를 색을 좋아하는 마음과 바꾸도록

2) 본고가 사용하는 섹슈얼리티는 남녀 간의 성적 행위, 인간의 성이 구성되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관행, 제도, 권력), 인간의 리비도의 본능과 욕망의 문제를 다루는 정신분석학적 층위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서의 섹슈얼리티이다.(Pat Caplan ed.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xuality*, London & New York: Tavistock Publications, 1987, pp. 1-10; 조주현, “섹슈얼리티를 통해 본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 주체의 성격”, 『섹슈얼리티 강의』, 한국성폭력상담소편, 동녘, 1999, 44-59쪽)

하라.”[학이편]라는 구절이나 군자의 삼계(三戒) 중의 하나로 제시되는 ‘여색(女色)’[계씨편(季氏篇)]은 유교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금욕적 태도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기술들로 논의되어 왔다. 공자가 ‘사무사(思無邪)’한 것으로 평했던 <시경>의 민간가요 가운데 30여 편의 남녀 애정시를 ‘음시(淫詩)’로 규정했던 주자의 시각은 주자학을 기반으로 하였던 조선시대 유교의 도덕주의적 성격을 보다 가시화하였다.³⁾ 실제로 조선시대에 유교와 신분제, 가부장제의 작동 속에서 일상의 미시적 층위에서까지 배치되었던 ‘예(禮)’는 개인의 몸에 대한 전근대식 훈육 기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호오(好惡)와 그로 인한 욕망을 규율하는 장치”⁴⁾로서의 ‘예(禮)’는 섹슈얼리티를 포함한 인간의 본능적 욕망을 억압한 사회적 기제로 논의된다. “재물을 좋아하고 색을 좋아하는 호화호색(好貨好色)은 인간의 보편 욕망이지만, 남의 욕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것만 충족시키려는 행위는 도덕적인 승인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맹자>, “梁惠王下”)에서와 같이, 유가의 보편주체는 성적 주체이면서 윤리적 승인을 받아야하는 주체였던 것이다.

그런데 성적 주체이면서 동시에 윤리적 주체인 유가의 주체가 욕망과 관계 맺는 양식은 결코 단일하게 논의될 수 없는 복합적인 층위를 가진다. 유교에서 회노애락은 외계와 상황에 대한 인간 에너지의 자연스런 표현이며, 유교는 실질적으로 인간의 욕망 그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⁵⁾ 공자의 ‘과유불급(過猶不及)’[<논어> 선진편

3) 이재훈, 『주자 시경설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245-321쪽.

4) 한형조, 「전통 예(禮)의 원리와 기능」, 『전통예교와 시민윤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창계, 2001, 30쪽.

5) “회노애락의 情이 발하지 않은 것이 中이요, 발하여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이 和이다.”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庸 集註』성백효 역주, 전통문화연구회, 1991, 61쪽.

(先進篇)]에서와 같이 유교의 중용의 도는 이러한 욕망을 제어하게 하는 힘이었지만, 중용을 벗어나는 ‘과도한’ 욕망·성애에 대한 징치가 있었을 뿐, 욕망 자체는 결코 금지될 수 없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으로 파악되었던 것이다.⁶⁾ 가령, 조선시대 ‘풍류’는 유가의 윤리적 틀 속에서 양반남성들의 문화적 욕구와 정념,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기제였다. ‘무과(無過)’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인간 성정의 발현을 허용하였던 풍류는 서서화악(詩書畫樂)의 교양취미와 사교취미뿐 아니라, 기녀를 통한 섹슈얼리티의 향유를 가능케 한 문화적 장치였던 것이다.⁷⁾ 따라서 유교의 예(禮)는 인간의 쾌락을 ‘금지’했다기보다 오히려 쾌락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활용’한 장치로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육욕을 죄의 근원으로 보는 서구 중세 기독교의 금욕주의적 전통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을 제기한다.⁸⁾ 또한, 몸/정신, 자아/타자 등의 근대적 이분법으로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 동양적 전통에서의 ‘나’란 “육체와 정신이 분리되지 않은 ‘몸’ 그 자체이다.”⁹⁾ 이러한 전근대 유교 사회의 정신과 육체의 통일체로서의 ‘몸’과 쾌락의 관계는 금욕의 틀을 넘어서 보다 입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¹⁰⁾ 유교가

6) 예란 결국 인간 사회의 혼돈과 무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인데, 유학은 이것이 순전히 외적 강제만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이며, 동시에 각자의 내적 본성을 실현하는 길이라 설득한다.(한형조, 앞의 글, 34쪽.)

7) 조선 후기 풍류의 역사적 성격에 관해서는 서지영, 「조선시대 중인층 풍류공간의 문화사적 의미- 서구 살롱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95호, 진단학회, 2003. 6 참조.

조선시대 유자(儒者)의 교양과 사교, 일상의 미학과 예술 취미를 대변했던 ‘풍류’는 문화적 취향에서 가족 제도 안에서 온전히 충족되지 않았던 성애적 욕구까지 포괄하여 사대부 남성들의 다양한 층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문화적 구성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 장 루이 플랑드랭, 「구시대 부부들의 성생활- 기독교의 교리와 현실세계」, 『성과 사랑의 역사』, 필립 아리에스 외, 황금가지, 1996, 160쪽.

9) 이승환, 「유가적 몸과 소속된 몸」, 『전통과 현대』 1999, 여름호, 20쪽.

인간의 욕망을 억압하였다고 보는 동시대의 일반화된 시선 속에는 육체·본능의 영역을 정신·이성의 영역과 분리시키고 몸과 감성의 영역, 섹슈얼리티를 열등한 것으로 위계화한 근대의 시선이 보다 깊숙이 침투해있는 것은 않은지 문제 삼을 만하다.

한편, 이러한 쾌락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윤리적 틀로서 예(禮)의 담론을 상정할 때, 유교에서 긍정되는 ‘보편’ 욕망이 삶 속에 과연 누구의 욕망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유교의 ‘예’는 일상의 영역에서 개인의 몸을 규제하는 장치이면서 철저하게 차별성을 바탕으로 하는 원리였다.¹¹⁾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육체와 정신의 통일체로서의 유가적 몸은 제도와 일상의 영역에서 초역사적인 관념적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몸으로 실재한다. 신분과 젠더의 차별화된 위계를 기반으로 하였던 조선 사회에서, 욕망의 문제 역시 신분과 젠더를 떠나서 논의될 수 없다. 가령, 보편의 이름으로 논의되는 유교의 이상적 자아상인 ‘군자’나 군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인 ‘덕(德)’은 양반 남성들의 경우 섹슈얼리티·욕망 등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충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양반 여성들의 경우 이러한 보편 자질들은 남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적용된다. 유교의 성별체계를 뚜렷이 드러내는 <열녀전>의 경우, 여성의 ‘덕(德)’은 ‘색(色)’의 대립 개념이 되는데,¹²⁾ 여성에게 부여되는 ‘군자’의 칭호는 추한 외모를 가졌으나 지식과 사리에 밝으며 ‘색(色)’이 발현되지 않는 무성적 여성을 지칭하고 있다.¹³⁾ 궁

10) 유교에서 쾌락이 도덕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것의 활용을 통해 도덕화하였으며, 유가가 욕망을 능동적 활동 속에 포함시켜 성욕을 ‘금지’가 아닌 ‘절제’나 ‘조절’의 원리 속에 운용한 것으로 본 논의로 이숙인, “여성 몸의 유교적 구성- 몸의 주체화를 위하여”, 『전통과 현대』, 1999, 여름호, 62쪽; 『동아시아 고대의 여성사상』, 여이연, 2005, 168-186쪽 참조.

11) “예악은 차이를 인정한 비대칭의 조화와 균형을 목표로 한다. 예는 근본적으로 위계적이고, 나아가 신분제적 바탕을 갖고 있다.”(한형조, 앞의 글, 35-36쪽)

12) 이숙인, 앞의 책, 191-199쪽.

극적으로 보편의 이름으로 논의되는 욕망의 긍정은 당대의 지배담론을 생산했던 ‘특수’ 계층, 즉 ‘사대부 남성’들의 욕망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¹⁴⁾ 조선시대 욕망이란 신분·젠더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고 위계적으로 운용되는 특수한 기호이다.¹⁵⁾ 사대부 남성들의 풍류는 유자(儒者)들의 조화로운 성정의 발현을 추구하였지만, 그 이면에 기생과 같은 천한 신분의 여성들의 몸을 매개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조선시대 사회의 몸과 욕망의 문제는 유교·신분제·가부장제의 교합 속에서 구성된 사회적 층위의 산물로 파악된다.¹⁶⁾ 당대 욕망의 공식은 신분과 젠더 등의 사회적 기제, 형이상학적 관념과 구체적 일상의 간극, 제도상의 명목론과 실제적 관행의 차이 등 사회의 다양한 외피들에 둘러싸여 있다. 문학은 그러한 외피들을 뚫고 발현된 당대 욕망의 특수한 형식들을 담고 있는 텍스트들이다. 특히 허구와 실재를 교차하면서 재현되어 있는 각 시기 소설 담론 속의 성애의 형식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시대정신과 결합하며 조선시대 에로스의 지형을 그려내고 있다.

13) 이는 <辯通傳>에서 齊나라 선왕의 정후가 된 추녀 ‘種離春’의 경우이다.(유향, 『열녀전』, 이숙인 역, 예문서원, 1997, 355쪽)

14) 브라이언 터너, 『몸과 사회』, 임인숙 역, 몸과 마음, 2002, 17-19쪽.

15) 김영미는 이러한 여성에게 부과된 德/色의 지표는 여성들 자체의 욕망의 발현이라기 보다는 유교의 이상을 추구하는 (남성)주체가 스스로의 욕망을 여성에게 투사하여 타자화한 현상이라 해석하기도 한다.(김영미, 「그녀는 추하기 짝이 없었다. 그리고 왕비가 되었다」,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 이화중국여성문학연구회 편, 이화여대출판부, 2002, 149-154쪽)

16) 브라이언 터너, 앞의 책, 102-105쪽.

3. 조선 전·중기 애정서사의 역사성

1) 사랑의 절대성과 주변성

김시습의 <금오신화> 속의 애정담들은 권력의 주변부에 있는 양반층 남성과 문벌 있는 집안의 여성 간의 애정과 결합의 좌절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낭만적 ‘사랑’의 모티프를 통해 조선전기 사대부 층의 권력 내부의 갈등과 인간의 성정을 억압하는 중세 사회 전반의 질곡을 드러내는 것으로 논의되었다.¹⁷⁾ 하지만 이 텍스트들이 담보하고 있는 성애와 남녀 간의 욕망의 문제는 조선전기라는 역사적 맥락의 산물로서 재검토될 만하다.¹⁸⁾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에서 이생과 최랑은 <시경>의 ‘관저’편에서 동양적 사랑의 원형으로 제기되는 “풍류재자와 요조숙녀의 만남”¹⁹⁾의 전형을 보여준다. 남성의 경우 비록 한미한 양반 출신의 남성이지만 사랑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적극적인 욕망의 주인공이다. 한편, 여주인공들은 문벌 귀족 출신의 외적 조건에다 재색을 겸비한 여성들이며, 섹슈얼리티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존재들로서 남성들의 낭만적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이상적 여성의 전형으로 재현되고 있다. <이생규장전>에서 최랑의 모습은 ‘자태’가 아리뭇고, ‘자수’를 잘하며, ‘시문’도 뛰어난

17) 박일용, 『조선시대 애정소설- 사실과 낭만의 소설사적 전개양상』, 집문당, 1993, 85-97쪽.

18) 신분제 하에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했던 고려시대에도 상층부의 결혼은 여전히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는 수단이자 신분상승의 도구로 작동하였지만, 이 시기에는 내외법이나 출가외인, 여성의 재혼금지 등의 유교적 젠더장치는 발견되지 않으며 조선시대에 비해 혼인을 둘러싼 남녀의 성애적 관계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인다. (국사편찬위원회 편,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 두산동아, 2005, 68-94쪽) 조선전기의 성애와 혼인의 관행 역시 시기적으로 이러한 고려시대의 습속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19) 김시습, <李生窺牆傳>, 『금오신화』, 심경호 역, 홍익출판사, 2000, 98쪽.

‘요조숙녀’의 전형이다.²⁰⁾ <만복사저포기(萬福寺携蒲記)>에서 양생의 여인 또한 얼굴과 자태가 곱고 단정한 선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거기다 이 여성들은 남성들의 구애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뿐 아니라,²¹⁾ 첫 만남에 어떠한 갈등이나 시간적 지연 없이 즉각적으로 사랑을 승인하는 여성들이다. 그 결과 남녀 주인공은 혼전의 자유로운 성애를 누리는 열정적인 연인이 된다.²²⁾

그런데 이들의 사랑은 혼인이라는 사회제도와 연관되면서 현실적 장애와 직면하게 되는데, 신분상의 차이로 인한 집안의 반대나 전쟁 등은 그들의 결연을 일시적으로 지연시킨다. 하지만 갖가지 장애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의 본연적 욕망에 기반 한 파토스(정념)와 에로스의 결합체로서의 사랑은 갈등 요소들을 극복하고 결연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²³⁾ 그

20) <李生窺牆傳>, 앞의 책, 98쪽.

21) 이는 주인공 양생과 여인뿐 아니라, 여인의 이웃으로 소개되는 여성들을 통해서 매우 직접적으로 묘사된다. “해마다 제비는 동풍에 춤추지만/ 애끓는 춘심은 사랑 일 헛되 어라// 부러워라 연꽃은 꽃받침이 붙어있어/ 한밤 같은 못에서 둘이 함께 목욕하니” [年年燕子舞東風 腸斷春心事已空, 羨却芙蓉猶並蒂, 夜深同浴一池中](萬福寺携蒲記>, 앞의 책, 68쪽.)

22) “좋은 인연이나 궂은 인연이나/ 부질없이 시름 앓아 하루가 일년이네// 스물여덟자 시로 중매가 이뤄졌으니/ 남교에서 어느 날 신선을 만나라[好因緣邪惡因緣, 空把秋暢日抵年. 二十八字媒已就, 藍橋何日遇神仙]”(〈李生窺牆傳〉, 앞의 책, 100면), “저는 애당초 그대의 아내가 되어 평생토록 키와 빗자루를 손에 드는 집안 허드렛일을 맡아 하면서 끝까지 환락을 맺으려 하였어요.[本欲與君, 終奉箕箒, 永結歡娛]”(앞의 책, 101쪽), “이생은 최처녀와 애정의 즐거움을 극도로 누렸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 날을 그곳에 유숙하였다.[生與女, 極其情歡, 遂留數日]”(〈李生窺牆傳〉, 앞의 책, 109쪽)

23) 박희병은 한국 전기(傳寄)소설의 문법을 애정욕망을 우선시하는 낭만성에서 찾고, 고독과 애상의 정조 이면에 비극성을 초월하고자하는 의지와 대상에 대한 변하지 않는 절의를 인식론적 기반으로 제시하였다.(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15-242쪽) 본고에서는 이러한 조선전기 애정서사의 소설 미학을 양산한 사회역사적 맥락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傳寄性은 인간의 보편욕망을 억압

러나, 위 작품들의 최종적인 서사의 결말에서 남녀의 본연적 풍정을 바탕으로 한 결연은 여성의 죽음과 같은 운명적인 요인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좌절되거나(<이생규장전>), 아예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환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만복사저포기>), 이러한 부정적인 결말은 새로운 해석의 지평을 요구한다.

위 작품들에서 남녀 간의 순수한 애정의 실현이 무화되거나 허구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종결구조는 궁극적으로 ‘현세에서의 남녀 간의 애정 성취의 불가능성’을 제기한다. 비록 주인공들이 사랑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며 성취의 욕구를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불가능성이 제기되는 이면에는 일차적으로 남녀 간의 순수한 애정 결합이 당대 현실 속에서 얼마나 실현되기 어려운 문제인지가 역설적으로 제기된다. 위 작품들에서 모든 것에 우선하여 사랑을 추구하는 남자 주인공은 물적 토대나 현실적 권력이 거의 부재한 당대 사회의 주변인에 지나지 않는다. <만복사저포기>에서 양생은 간절하게 풍류와 법도를 알고 시문도 하는 총명한 요조숙녀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랑과 결혼으로부터 소외된 주변자적 위치를 극단적으로 드러낸다. 이생과 양생의 사랑에 대한 열망과 그것의 좌절은 일차적으로 현세적 가치가 주도하는 현실 속에서 에로스의 욕망 역시 쉽게 성취되지 않는 현실적 정황을 드러낸다. 그런데, 위 작품들에서 주인공 남성들이 선택하는 에로스의 가치는 또 다른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즉 세

하는 현실의 질곡과 더불어, 이에 대한 작가 특유의 낭만적인 극복방식 등으로 논의 되어왔다. 김시습의 작품들은 조선전기 신진사류 혹은 중앙정계에 부상하기 전의 ‘사림층의 동반자’로서의 사회적 입지를 보여주는 소외된 지식인이 사랑을 통해 당대의 현실질서의 극복을 낭만적으로 꿈꾸면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논의되었다(박일용, 앞의 책, 86-117쪽). 하지만 본고는 작가 중심의 해석보다는 김시습이 자리 했던 조선 전기 사회가 구성하고자 한 사랑과 섹슈얼리티의 공식이 지니는 다층적인 의미에 주목하고자 한다.

속적인 권력에서 소외된 주변인으로서 이생이나 양생이 선택하는 ‘사랑’은 그 자체가 당대 현실 속에서는 다양한 가치들에서 밀려난 주변적인 것임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진 자로서 현실의 다양한 가치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주변인으로서 그들에게 유일한 가치로 남은 사랑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그들이 제기하는 사랑의 절대성은 역설적으로 그 이면에 현실 속에서의 사랑의 주변성을 담보하게 된다.²⁴⁾

나아가 김시습의 작품들에서 제기되는 사랑의 불가능성의 문제는 사랑 자체의 불가능성, 즉 현실의 삶 속에서 온전히 성취될 수 없는 욕망의 본질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나아가고 있어 흥미롭다. 이는 이들 작품이 지니는 전기성(傳奇性), ‘환상성’의 장치와 긴밀히 연계된다. <만복사저포기>에서의 명혼 모티프, 즉 이승에서 부재하는 원귀와의 결합이 지니는 환상성은 일차적으로 인간 본연의 욕망을 긍정하는 장치로 기능하기도 한다.²⁵⁾ 하

24) 박일용은 <李生窺牆傳>이나 <萬福寺携蒲記>에서 이루어지는 초월적 공간에서의 환상체험은 주인공의 간절한 소망이 창출한 환상의 형식이자,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사랑을 하는 남녀의 절곡적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라 보았는데 이는 타당한 지적이라 생각한다.(박일용, 『<만복사저포기>의 형상화 방식과 그 현실적 의미』, 『고소설 연구』 18집, 고소설학회, 2004, 41-45쪽; 『<이생규장전>의 밀회 장면에 나타난 환상성과 그 현실적 의미』, 『고소설 연구』 20집, 고소설학회, 2005, 10쪽). 그런데, 두 작품에서 특히 <만복사저포기>에서 두드러지는 여성 인물의 적극적인 애정 주도 및 본능의 긍정을 ‘인간의 기본적인 소망조차 말할하는 중세적 질서의 부조리’에 대한 여성의 저항으로 보고 있는데(박일용, 『<만복사저포기>의 형상화 방식과 그 현실적 의미』, 44-56쪽), 필자의 견해로는 조선전기와 중기 애정서사에 발견되는 여성인물의 적극적 자기표현을 애정 문제에 대해 사대부 여성들을 침묵시켰던 조선후기의 작가적 상상력에 비해 오히려 이념이나 규범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시기의 산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본고는 위 작품들에서 욕망을 좌절시키는 기제가 유교 이념이나 신분, 젠더 등의 중세적 사회 질서보다는 현실 속의 사랑의 주변성이나 죽음이나 환각과 같은 인간의 존재론적인 한계에 기인하는 지점에 주목한다.

25) <만복사저포기>에서 양생이 여인의 이웃들과 만났을 때, 남녀 간의 본능적 정회(情

지만 사랑의 주인공은 이승으로부터 추방된 원귀이며 그들이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성애의 욕망을 해소하는 공간은 이승으로부터 소외된 변방의 공간이다. 표면적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사랑을 성취하고자 하는 낭만적 상상력을 제기하지만, 그들의 절실한 욕망은 이승에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절망을 동시에 내포한다. 정신분석학적인 비유를 들자면 이는 상징계(현실적 질서) 속에서는 결코 손에 넣을 수 없는 ‘텅빈 기표’이자 ‘원초적 결여’와 같은 것이다.²⁶⁾ 이는 ‘사랑’이라는 기표를 통해 인간의 욕망이란 근원적으로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것임을 암시하는 김시습의 비극적 시선과 맞닿아 있다. 문학에서 ‘환상성’은 궁극적으로 문화적 속박으로부터 야기된 결핐을 보상하려는 특징을 지니며, 이러한 문학적 환상물은 그것이 양산된 사회적 맥락과 깊이 연관될 수밖에 없다.²⁷⁾ 하지만 <금오신화>의 환상성은 현실적·사회적 층위에서의 결핐만으로는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 에로스에 대한 근원적 통찰이 제기되고 있다. <금오신화> 속의 환상성의 이면에는 유교적 합리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불교적 인식론(인연설, 윤회설 등)이 기저하고 있지만,²⁸⁾ 한편으로 사랑의 부재를 통해 인간 욕망의 본원적 결핐을 이야기하는 작가 김시습의 철학적 탐색이 자리하고 있다.

懷)를 시문을 통해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자리에서 한 여성(김씨)이 이를 음탕하다고 나무라면서, “우리의 풍정이 속인에게 알려질까 걱정이요.”[風情恐與俗人通](萬福寺携蒲記, 앞의 책, 71쪽)라고 염려한다.

26) 권택영, “욕망에서 사랑으로-라캉과 크리스테바의 타자”, 『우리시대의 욕망읽기』, 라캉과 현대정신분석학회 편, 문예출판사, 1999; 아니카 르메르, 『자크 라캉』, 이미션 역, 문예출판사, 1994, 236-246쪽.

27) 로즈메리 잭슨, 『환상성-전복의 문학』,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문학동네, 2001, 11-12쪽.

28) <萬福寺携蒲記>의 여인은 스스로 시경·서경으로 대표되는 유교적 계율을 어긴 몸이라 하지만 ‘풍정’을 이길 수 없었다고 토로하는데, 당대 유교규범이 부여하는 사회적 긴장이 아직 이들의 욕망을 제어할 정도는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앞의 책, 77쪽)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통해 본 조선 전기의 애정서사의 특징은 일차적으로 남녀 간 ‘사랑’의 절대적 가치를 토로하지만, 그것이 처한 현실적 주변성 또는 사랑의 불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역설적 지점에 놓여있다. 위 작품들은 신분이나 젠더 상의 권력, 혼인의 제도적 관행, 기타 사회적 언어들에 온전히 포섭되지 않는 채 보다 적극적으로 에로스의 가치가 추구되는 조선 전기의 사회적 맥락을 일견 암시한다. 하지만 이들은 환상성의 장치를 통해 현실(이승)의 층위에서 온전히 해소되지 않는 인간 욕망의 근원적 결핍을 제기하며 그것에 대한 초월에의 지향성을 열어 놓는다.

2) 현실과 환상의 이중주

조선 전기의 전기성(傳奇性)을 바탕으로 한 사랑의 ‘판타지’ 내부에서 확인되는 성애의 양식은 조선중기에 이르러 다소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7세기 주변부 지식인의 시선이 투영된 <주생전>에서도 <금오신화>와 같이, 지배계층 내부의 권력적 위계가 주인공의 결연의 장애요소로 등장하며 주변인으로서 그들이 선택한 사랑의 주변성이 암시된다. 하지만 <주생전>의 경우 사랑이 지니는 원천적 가치를 토로하고 환상의 장치를 통해 욕망의 근원적 결핍과 한계를 제기하는 <금오신화>에 비해 사랑이 구성되는 현실적인 조건이나 현실에서의 사랑의 과정 그 자체에 보다 밀착해 있다. <주생전>은 권력의 주변부에 있는 양반 주생을 둘러싸고, 신분이 다른 두 여성, 기생 ‘배도’와 사대부 층 여성 ‘선화’를 등장시킴으로써, 남녀 간의 애정이 신분적 기제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보다 뚜렷하게 가시화시킨다. 먼저 기녀 배도는 조선시대 사대부 남성들의 풍류문화를 매개하고 잉여적 쾌락의 대상으로 소비되었던 기녀 계층의 한계를 벗어나, 양반과의 지속적·사적인 관계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욕망의 주체로 등장한다. 하지만, <이생규장전>에서의 최량의 입지를 잇는 선

화는 주생에게 애정의 욕망 충족뿐 아니라 혼인을 통한 사회적 보상까지도 동반하는 이상적인 연인으로 선택되고, 결국 기생 배도는 버려진다. 여기서 배도와 선화의 차이는 단순한 신분의 차이만은 아니다. 그것은 물질, 사회적 권력의 토대 하에 구성되는 문화적 계급의 차이를 포함하는데, 이는 당대 사랑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기능한다. 배도는 뛰어난 시문 실력과 더불어 자태도 아름다웠지만²⁹⁾, ‘금빛 병풍’과 ‘채색담요’를 배경으로 광채를 내고 있는 선화가 가지는 계급적 아우라와 비견되지 못한다.³⁰⁾

<주생전>의 선화는 <금오신화>의 최랑이나 양생이 만난 여인과 마찬가지로, 남성들의 고아한 취향과 성적 매력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이상적 여인상이다. 그런데 <이생규장전>에서 이생이 최랑을 만나기 위해 담장을 넘는 모험을 감행했을 때 최랑이 정원 한 구석에서 그를 쉬이 맞았다면, <주생전>에서 주생 역시 선화를 만나기 위해 규율을 위반하고 담장을 넘지만, 선화의 처소에 이르기 위해서 “굽이진 기둥”과 “주렴과 장막이 겹겹이 드리워진”³¹⁾ 복도를 돌아들어가야만 했다. 이는 조선 전기 소설에 비해 남녀 간의 사랑에 이념적 외피가 부가된 흔적을 암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대부 여성 섹슈얼리티의 봉쇄를 상징하는 규방 공간에 침입해 들어간 주생에게 쉽게 동침을 허락하는 선화의 모습은 흥미롭다. 선화는 <금

29) “주생은 이미 배도의 외모를 사랑하게 된 터에 또 그녀가 지은 시를 보자, 마음이 미혹되어 온갖 상념이 일었다.[生既悅其色, 又見其詩, 情迷意惑]”(권필, <주생전> [김구경 소장본],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이상구 역, 월인, 1999, 38쪽)

30) “나이 14-5세 정도 되는 소녀가 주인 옆에 앉아 있었는데, 구름처럼 고운 머릿결에는 푸른빛이 맺혀있고, 아리따운 뺨에는 붉은 빛이 어리어 있었다. 밝은 눈동자로 살짝 흘겨보는 모습은 흐르는 물결에 비친 가을 햇살같았으며, 어여쁨을 자아내는 미소는 봄꽃이 새벽이슬을 머금은 듯했다.”[有少女, 年可十四五, 左右夫人之側, 雲鬢結綠, 翠臉凝紅. 明眸斜眄, 若流波之映秋日, 巧笑生倩, 若春花之含曉露,](<주생전>, 앞의 책, 44쪽)

31) “是夜無月, 踰垣數重, 方到仙花之室, 曲檻回廊, 簾幕重重”(<주생전>, 앞의 책, 49쪽)

오신화>의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규방의 연정을 곡진하게 표현하는 욕망의 주체이며, 이들은 남성과의 최초의 만남에서 동침을 거부하지 않는다. 여기서 사대부계층의 여성들에게 강요된 유교의 정절 이데올로기에 의해 크게 구속되지 않는 듯한 선화의 태도와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차적으로 선화는 남성들의 상상적 욕망을 자극하고 대리적으로 해소하는 판타지의 허구적 산물이다. 하지만 이러한 낭만적 허구물로서 소설이 가지는 한계를 상정하더라도, 이러한 재현 속에 투사되어있는 작가의 욕망과 상상력 또한 당대 현실적 산물로서 개연성을 지님을 상정한다면, 17세기 <주생전>의 '선화'는 사대부층의 여성이 조선 전기·중기까지, 여전히 사랑 또는 성애의 주체로 자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배도가 주생을 통해 자신의 기생으로서의 처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동기와 주생이 신분적으로 비천한 배도와 문화적·경제적 상층계급 출신의 선화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선화를 선택하는 지점은 사랑이라는 낭만적 판타지의 외피 이면에 신분적·현실적 토대와 원천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되는 욕망의 회로를 보다 가시화시킨다. 이러한 17세기 한미한 양반 남성들의 사랑지상주의와 판타지 속에는 권력의 주변부에서 사랑 또는 여성을 통해 사회적 상승을 대리 충족하고자 하는 현실 지향적 욕망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³²⁾ <금오신화>에서와 같이, 사랑의 판타지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넘어서 해소되는 낭만적인 상상력과 달리, <주생전>은 '이상적' 성애와 결연의 대상이었던 상층사대부 여성과 '실질적'인 성애의 공급자였던 기녀 사이에서 배회하는 양반 남성들의 보다 현실적 상상력에 보다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드러낸다.

32) 이러한 여성(사랑)을 통해 현실적 결핍을 대리 충족하고자 하는 주변부 지식인의 현실적 욕망은 <옥단춘전>과 같은 조선 후기 기녀 등장 소설들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투영되어 있다.

조선중기, 17세기 소설이 보여주는 애정 서사의 역사성은 <구운몽>, <운영전>, <위경천전>, <최척전>을 통해서 보다 풍부하게 논의될 만하다. 이 시기의 소설들에서도 일차적으로 <금오신화>에서와 같이 남녀 간 애정에 절대적 가치가 부여되는 지점이 발견된다. <구운몽>의 경우 동양의 일부다처제 전통을 바탕으로 한 양반남성의 특권적 위치가 중심이 되고 비현실적인 판타지의 성격이 농후하지만, 양소유와 여덟 여인들(2처, 6첩) 간의 자유분방하고도 다채로운 애정행각, 그리고 동성애적 징후까지 포함하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열린 태도는 유교적 규율에 온전히 속박당하지 않은 당대인의 욕망의 무의식을 발현하고 있어 흥미롭다.³³⁾ <주생전>과 유사한 구조로 전개되는 <위경천전>에서 위생과 소속방의 관계는 그 애정의 정도가 지나쳐 죽음에까지 이른 절대적 사랑의 표본을 보여준다.³⁴⁾ 그리고 <최척전>의 경우, 남녀 간의 연정이 자연스럽게 혼인으로 이어지고 갖은 환란과 시련 속에서도 부부의 백년해로의 욕망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어 전기 애정서사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다.³⁵⁾ 하지만 이러한 작품들은 서사의 한 축에서 남녀 간의 애정의 절대성을 낭만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있지만, 또 다른 축에서는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전쟁(<최척전>)이나 부모의 반대(<위경천전>)와 같은 현실적 제약들이 서사의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17세기의 또 다른 소설 <운영전>의 경우 궁녀라는 전혀 다른 신분의 여성이 애정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남녀 본연의 애정이 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역사적 현실을 전면적으로 제기한다.³⁶⁾ <구운몽>이 ‘꿈’이라는 환상적 기제를 통해 인간

33) 김만중, 『구운몽』, 정규복·진경환 역주,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6.

34) <위경천전>,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이상구 역, 월인, 1999, 71-101쪽.

35) <최척전>,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이상구 역, 월인, 1999, 199-239쪽.

36) <운영전>, 앞의 책, 102-167쪽.

욕망의 긍정과 쾌락의 즐거움을 낙천적인 시선으로 형상화한다면, <주생전>의 기녀 배도나 <운영전>의 궁녀 운영은 신분과 젠더기제에 기반한 한 제도 권력이 사랑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어떤 환상적 기법으로 온전히 낭만화 되지 않는 사랑의 고통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조선 중기 소설들에서 가시화되는 쾌락의 ‘즐거움’과 ‘고통’, ‘낭만’과 ‘현실’이라는 대립적 축은 남녀 간의 ‘사랑’을 교차하는 두 얼굴이다. 이러한 사랑의 양면성을 관통하는 중기 소설의 뒤틀린 시선은 에로스에 내재하는 사회적 갈등을 무화시키고 욕망의 본질적 영역을 탐색하는 조선 전기소설의 초월적 상상력과 차별화된다.

4. 조선후기, 에로티시즘으로의 도피

1) 가족제도 밖의 사랑과 열녀 기녀의 전형화

‘풍류재자와 요조숙녀’라는 동양적 사랑의 원형을 담고 있는 조선 전·중기의 애정 서사는 조선후기로 가면서 보다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조선후기의 소설에서는 전기나 중기와 같이, 한미한 ‘양반 남성’과 ‘사대부 여성들’의 자유로운 만남, 혼전 성애, 그리고 혼인으로 이어지는 애정서사를 찾기 힘들다. 대신 사랑과 혼인은 서로 분리되고, 이는 각각 다른 신분의 여성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즉 규방의 여성들은 집안 간의 정략결혼의 관습을 통해 철저히 가족 속의 정실부인의 이미지로 표상되는 반면, 혼인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랑은 가족제도 밖에서 풍류를 매개하는 기녀들의 몫이 되고 있는 것이다.³⁷⁾

37) 조선후기에 기녀가 등장하는 서사(설화, 소설)에 대한 현황은 조광국, 『기녀담, 기녀 등장소설 연구』, 월인, 2000, 참조

조선 전기·중기에도 기녀는 양반 남성들의 성애적 대상으로 자리하였지만, 소설에서 그들이 사랑의 지배적 아이콘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조선후기에 이르러 기녀는 기존의 사대부 여성들을 대신하여 양반 남성들의 낭만적 판타지의 대상이 되며, 사랑의 절대성을 노래하는 애뜻한 정념의 주인공이 된다. 이러한 사랑과 혼인의 분리 그리고 규방과 기방의 이분법적 구도는 일차적으로 유교 이데올로기의 경직화를 가져온 조선후기 사회의 구조적 산물로 파악된다. 이는 바로 가족 속의 섹슈얼리티가 보다 금욕적인 형태로 통제되는 반면, 억제된 에너지는 기방과 같은 풍류 공간에서 더 풍부하게 발현되는 조선후기 욕망의 경제학을 토대로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가족제도 밖의 사랑의 주인공인 기녀들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표상성을 띤다. 조선시대 양반남성과 기녀와의 사랑은 비록 현실적으로 허용된 관행이었지만, 적장자의 어머니인 정실부인에게 절대적 지위를 부여하였던 가족 제도 밖의 일탈된 사랑이며, 이는 금기와 위반의 욕망을 채워주는 에로티시즘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³⁸⁾ 규방의 여성들이 정숙함과 고아한 미덕을 갖추는 반해, 기녀들은 양반남성들의 풍류 공간에서 기예와 섹슈얼리티를 공급한 존재로서 공식담론 속에서 이들은 유혹적인 음녀(淫女)의 전형이었다.³⁹⁾ 그런데 조선후기 소설들에서의 기녀의 지배적인 형상은 정절을 지키는 열녀 기녀이다.⁴⁰⁾ 17세기 <주생전>

38) 여기서 에로티시즘은 제도와 금기에 대한 인류의 본원적 위반의 욕망으로 접근하는 조르주 바타이유의 가설을 바탕으로 한다.(조르주 바타이유, 『에로티시즘』, 조한경 역, 민음사, 1989) 하지만 조선시대 양반과 기녀의 사적인 사랑은 공식적으로 금기시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제의 작동 아래 공공연히 허용된 관습적 사랑으로 정착하였으며, 조선후기에 이르러 기녀의私有化는 중인층 남성에게까지 확산되는 등 제도 문면으로 가시화되는데, 이때 금기와 위반이 야기 시키는 사회적 긴장은 약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39) 황진이와 같은 도발적이고 유혹적인 기생 이미지를 넘어 많은 야담에서 기생은 양반 남성을 파멸시키는 팜프파탈적 이미지로 재현되기도 한다.

에서 사대부 출신의 선화와 기녀 배도는 주생과 삼각관계에 있었던 연적(戀敵)으로서, 그들은 신분적 차별성과 문화 계급적 자질은 확연히 구분되었으며 주생은 기녀 배도를 버리고 상층부 출신의 선화를 선택한다.⁴¹⁾ 하지만, 조선후기 소설에서 기녀는 사대부 규방 여성의 이미지를 대체하고 있다. 즉 양반남성과 정숙한 기녀 사이의 사랑의 플롯이 지배적인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때 등장하는 기녀들은 자신들의 섹슈얼리티를 적절하게 조절하거나 때로 무화시킴으로써, 음란한 쾌락의 지표인 ‘이브’적 형상에서 사랑과 헌신의 지표인 ‘마리아’의 형상으로 전이 또는 상승되고 있다. 이러한 기녀의 변신은 당대 사회가 신분에 따라 구획한 여성 섹슈얼리티의 이분구도 즉 열녀(사대부여성)/음녀(기녀)를 넘어서는 이율배반적 존재가 양산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춘향전>에서와 같이, ‘규중처자’이기도 하고 ‘천한 기생’이기도 한 춘향의 모호한 정체성⁴²⁾ 속에는 공존하기 힘든 이질적 속성이 합성되어 있다. 즉 양반 남성에게 관능적 기술을 바탕으로 풍류를 제공하는 기녀로서의 자질과 지아비에게 절개를 지키는 사대부 여성의 덕목을 동시에 갖춘 춘향은 조선후기 기방에서 양산된 특수한 여성 아이콘을 대변한다.

한편, 양반과 기녀의 사랑은 유교 및 신분제와 가부장제 속에서 남녀간의 신분적·성적 위계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역사적 사랑으로서, 가족제

40) 서지영, 「조선시대 기녀 섹슈얼리티와 사랑의 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305쪽.

41) “배도가 그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배도는 그 소녀에 비하면 봉황에 섞인 갈가마귀나 울빼니요, 옥구슬에 섞인 모래나 자갈일 뿐이었다. 그 소녀를 본 주생은 낮이 구름 밖으로 날아가고 마음이 공중에 뜬 듯이 황홀하였다. 그래서 몇 번이나 미친듯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갈 뻔했다.”[桃坐于其間, 不啻若鴉鶻之於鳳凰, 砂礫之於珠璣也. 魂飛雲外, 心在空中, 幾欲狂叫突入數次](<주생전>, 앞의 책, 44쪽)

42) 춘향의 신분적, 자질적 정체성은 하나의 판본 내에서도 혼란스럽게 제시될 뿐 아니라, 다양한 이본들 속에서 이질적으로 구성됨으로써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다.

도 밖에서 풍류의 이름으로 소비되는 에로스의 한 형식이었다. 그런데 당대 소설 속에서 이들의 사랑은 양반과 기녀 사이의 가족 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단순한 섹슈얼리티의 교환이 아니라, 친밀감(정감)을 동반한 성애(sexual love)의 형태를 띠며 나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식 혼인을 열망하기에 이른다. <춘향전>을 위시하여 많은 소설에서 형상화되는 양반 남성과 기녀 사이의 행복한 결연과 정실부인이 되는 기녀의 모습은 허구적인 상상력을 통해 현실의 결핍을 메우고자 그들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다.⁴³⁾ 제도적 현실과 불일치하는 이러한 허구 속의 사랑의 낭만적 지향성은 혼인과 사랑을 분리시켜 작동시킨 조선후기 사회의 이중기제가 양산한 모습을 드러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춘향전』은 신분에 따라 차등적이고 배타적으로 그리고 정략적으로 혼인이 추진되면서 성애의 욕망은 혼인제도 밖에서 충족시켰던 전근대 사회의 쾌락과 욕망의 법칙에 균열을 가하고 있다. 비록 소설의 형식으로나마, 양반과 기녀는 사회 속의 갖가지 갈등적 요소들을 넘어서 에로스의 절대적 가치를 제도 속에 구현하고 사랑과 혼인이 일치되는 근대적 형태의 사랑을 꿈꾸었던 것이다.⁴⁴⁾

43) 19세기 김해지방 관기였던 강담운의 경우, 차산 배전(1843-1899)과의 사랑을 통해 백년해로를 꿈꾸었으며 이러한 열망은 그의 시 속에 다음과 같이 형상화되어 있다. “님은 높은 용나무 되고, 나는 덩굴되어/ 백년 동안 열싸안은 가지가 되리// 숲 찾는 도끼 가까이 올까 두려우니/ 정이 뿌리 베어가면 그를 어찌할꼬[郎作高榕妾女蘿 百年纏繞在枝柯// 生來怕近搜林斧 割到情根奈爾何], “寄遠”,(『只在堂 姜澹雲 詩集』, 이성혜 역, 보고사, 2002, 56쪽). 하지만, 이들의 백년해로는 성사되지 못했는데 실제로 조선시대 양반 남성과 기녀와의 사랑은 제도 안으로 편입되기 힘든 결혼제도 밖의 사랑에 머무른다.

44) 서구에서 발현된 근대적 사랑은 19세기 전후, 유럽에서 남녀 간의 성애와 결혼제도를 조화롭게 결합시킨 낭만적 사랑에서 찾을 수 있다. 신흥 부르주아 계급의 금욕주의적 도덕관을 바탕으로 하여 양산된 낭만적 사랑은 자유연애결혼 및 근대 일부일처제의 근간이 되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사랑의 형식으로 확산된다.(안소니 기든스,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친밀성의 구조변동』, 배은경·황정미 역, 새물결, 2001, 75-112쪽; 볼프강 라트, 『사랑 그 딜레마의 역사』, 장혜경 역, 이끝리오.

2) 권력화된 성애와 판타지의 해체

사랑과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조선후기 사회의 역동적 이면을 드러내는 지표로서 이러한 양반 남성과 기녀 사이의 사랑을 초점화 하는 작품 외에, 당대 소설들 속에는 유교 이데올로기가 에로스의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되어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작품들과, 당대 사회의 욕망의 공식을 해체하고 변형시키고자 한 계열의 작품들이 주목된다. 먼저, 전자의 경우는 권력과 성애의 긴밀한 연관 관계, 즉 성애가 신분 및 젠더 장치 속에 보다 강력하게 포획되는 양상을 드러내는 작품들이다. <옥루몽>의 경우, 장편영웅소설로서 다채로운 주제들을 담고 있지만, 남녀 간의 애정이 당대 사회의 지배 이념에 교착되는 양상과 ‘풍류’의 틀 속에서 재구성되고 있는 권력화된 판타지의 예를 잘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 전문적인 작가층의 형성과 상업적 출판을 목적으로 한 대중적 장편 한문소설⁴⁵⁾의 하나인 <옥루몽>은 조선후기 계급적·성적 위계의 산물이자 당대 지배층 남성들의 섹슈얼리티를 발현 양상을 대변하는 ‘풍류’의 기호가 대중적 코드 속에 얼마나 널리 유통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양창곡과 강남홍의 만남은 ‘소년재사’와 ‘절대가인’의 만남으로서 조선후기 대중 소설 속에 사랑의 주인공으로서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양반남성과 기녀의 모습이다. 여기에서도 전기·중기 애정서사에서 사대부가 출신의 여성을 의미했던 ‘요조숙녀’가 기녀로 대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강남홍은 기녀임에도 불구하고 ‘지조’, ‘문장’, ‘가무’, ‘자색’을 갖춘 출중하

1999, 158-193쪽) 한국에서 이러한 근대적 사랑의 형태는 20세기 초 식민지 시대 서구문화의 유입을 통해 등장하는데, 조선후기의 <춘향전>에서 비록 제도적 차원의 변화는 아닐지라도 문화의 심층 속에서 근대적 유형의 사랑이 모색되었다는 측면은 주목할 만하다.

45) 김경미, 「19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성표현관습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9집, 2003, 71-75쪽.

며, 양창곡과 처음 밤을 보낼 때 순결의 상징인 ‘앵혈’이 발견되는 정숙한 기녀이다.⁴⁶⁾ 신분적으로 천한 존재이지만, 사대부 규방여성들의 덕목을 모두 갖춘 기녀로 탈바꿈함으로써 강남홍은 ‘풍류재자’의 짝인 ‘요조숙녀’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그런데 <춘향전>에서, 춘향이 정숙한 규방여성의 덕목과 유혹적 요부로서의 자질을 동시에 가지며, 이몽룡과의 관계는 남녀 간의 본연지정을 긍정하는 성애였음을 보여줌에 반해, <옥루몽>에서 남녀 간의 만남 또는 결연은 이성간의 사랑의 차원이 아니라, ‘지인지감’(知人之鑑)과 같은 탈성애적 관계로 전이된다.⁴⁷⁾ 여기서 ‘지기(知己)’는 신분과 젠더의 차별을 넘어서고, 남녀 또는 부부관계의 위계를 넘어서는 수평적인 만남의 장을 만드는 이상적 기제로 설명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기(知己)’와 같은 중립적인 가치를 담보하는 기제의 등장이 성애를 기반으로 하는 남녀 간의 만남의 특수성을 무화시키는 점은 이념적 명분 속에 남녀 간의 애정이 포섭되고 중화되는 지점을 제기한다.⁴⁸⁾

또한, 강남홍은 이러한 가족 제도 밖의 격조 있는 풍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서 양창곡의 부인으로 운소저를 직접 천거하며, 운소저와 돈독한 우정을 교류한다. 이러한 가족 안의 여성과 가족 밖의 여성을 조화롭게

46) 남영로, 『옥루몽-1』[세창서관 한문현토본] 김풍기 역, 그린비, 2006, 61쪽, 85쪽.

47) 향주의 교방에서 가장 뛰어난 기녀였던 강남홍의 경우, 성품이 청고하고 강직하여 지기가 아니면 결코 복종하지 않고 몸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기술되며, 이러한 지인지감, 지기의 관계는 남녀 관계 외에 여성들 간의 관계, 즉 강남홍과 운소저와의 관계에서도 확인된다.(남영로, 앞의 책, 42쪽, 68쪽, 94쪽)

48) 이승수는 <옥루몽>에서 남성과 여성들의 관계 전반을 주도하는 원리가 바로 ‘지기’이며, 이는 우도가 19세기 지식인들의 자의식의 일면이자, 명분과 이념으로 경직된 당대 사회를 극복하는 새로운 관계의 원리였음을 지적하였다(이승수, 「<옥루몽> 소고 1- 남녀지기론의 허실과 여성의 발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183-208쪽). 하지만, <옥루몽>에서의 ‘지기’는 남녀 간의 성애적 관계를 이념적·규범적 논리로 봉합하려는 조선후기 애정 담론의 특징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관계 맺게 하는 서사 전략 속에서 처첩 간의 질투와 관계상의 갈등은 무화되고, 배타성과 독점성을 특징으로 하는 남녀 간의 욕망의 문제는 의리와 도리 등의 각종 유교적 규범 속에 봉합된다.⁴⁹⁾ 가부장제가 이중적으로 관리했던 여성 섹슈얼리티의 두 극단(정숙함/음란함)을 담보한, 계급적으로 다른 두 여성인, 기녀와 규방의 여성은 ‘지조’라는 동일한 품성을 부여받고 협력자로 배치된다. 그 결과, 가족 안의 명분과 가족 밖의 풍류(쾌락)가 갈등 없이 조절되고 향유됨으로써 지배층 남성의 욕망은 조화롭게 충족된다.

<옥루몽>에서 강남홍, 벽성선, 일지련 등 양창곡의 세 첩은 기녀이거나 이민족 출신이지만 사대부가 여성들 못지않은 부덕과 재주를 지니며, 안팎에서 양창곡을 보조하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탁월한 여성영웅들이다.⁵⁰⁾ 하지만 이들 여성들은 양창곡을 능가하는 능력을 지녔을 뿐 아니라 남성들보다 더 철저히 유가의 이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들이다. <옥루몽>의 개성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인물들은 그 자체로서 새로운 여성상의 구현으로 논의될 수도 있지만,⁵¹⁾ 이들을 탈여성화하는 서사 전략은 궁극적으로 여성성 자체를 탈각시키고 여성인물을 유가의 남성들의 사회적 욕망이 투사된 허구적 대리물로 기능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옥루몽>

49) “강남홍은 윤소저의 현숙함에 마음으로 탄복하였고, 윤소저는 강남홍의 총명함을 사랑하게 되었다. 서로간의 정이 두터워져 앉으면 책상을 함께 하고 누우면, 베개를 나란히 하면서 고금인물의 덕과 공적, 문장을 토론하니, 서로 너무 늦게 만난 것을 안타까워할 정도였다.”(남영로, 앞의 책, 2006, 94쪽)

50) 최지연, 「<옥루몽>의 여성 인물 형상화와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10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69-90쪽.

51) 최지연은 강남홍에서 ‘새로운 여성영웅의 모습과 유가적 공명의식’을, 벽성선에서 ‘도선적 풍류예인과 탈속의식의 표출’, 일지련에서 ‘소박한 농부적 정취와 여민동락의 즐거움’을 읽어내고 있다.(최지연, 앞의 논문, 77-90쪽) 하지만, 이러한 인물들이 보여주는 탈여성화 양상과 이상적 가치지향은 남성인물 양창곡 나아가 작가의 정치적 무의식을 반영하는 허구적 매개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은 구조적으로 <구운몽>에서의 낭만적 판타지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지만, <구운몽>에 비해 인물의 성격과 행위의 기반이 보다 더 유가적 이데올로기에 교착되어 있으며, 여성인물의 남성화와 남녀관계의 탈성애화로 인해 인간(남녀)의 보편욕망에 대한 긍정은 <구운몽>에 비해 오히려 문면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옥루몽> 서사 전반을 관통하는 남성 욕망과 재현의 정치학 속에는 권력에 의해 조정되는 섹슈얼리티의 형식이 문제 제기된다. 풍류의 이름 속에 긍정되는 섹슈얼리티는 궁극적으로 양반남성의 입장에서 추구되는 욕망이며, 서사 속의 에로스의 형식은 이러한 젠더화의 산물로 파악된다.⁵²⁾ 조선후기 소설에서 보다 뚜렷하게 탐지되는 젠더 기제 속에서 남녀 간의 사랑은 열정과 폭력, 사랑과 강간·간통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오가게 된다.⁵³⁾

이러한 성애의 젠더화가 서사 속에 보다 강력하게 작동하는 양상을 한 축으로 한다면, 조선후기의 소설들에서는 전대(前代)의 멜로 판타지를 의도적으로 해체하고 나아가 성애에 초점을 두어 지배이념으로서의 유교 및 양반계급의 허구성을 회화화하는 작품들이 또 다른 축을 이룬다. 여기에

52) 조혜란의 연구, 「고소설에 나타난 남성섹슈얼리티의 재현양상」(『고소설 연구』 20집, 2005, 397-406쪽)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현성록>에서 강간을 해서라도 지우려는 남성의 앵혈과 지위도 지워지지 않는 여성의 앵혈의 대조적 측면과 여성의 순결에 대한 '강박' 및 '앵혈에 대한 고착'은 조선후기 유교(성)규범의 강화를 반영하는 섹슈얼리티의 젠더화 양상들이라 할 수 있다.

53) <옥루몽> 속의 성애적 표현 속에 폭력성이 은폐되는 양상과 그것이 풍류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되고 미화되는 측면에 대한 연구(유광수, 「옥루몽, 성애 표현의 서사적 기능과 은폐된 폭력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집, 2005)와 조선후기, 사랑의 이름 속에 은폐된 폭력과 강간이 이루어지는 사례와 간통이라는 개념이 신분과 젠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를 야담에서 찾은 논의(최기숙, 「관계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 성, 사랑, 권력- 18, 19세기 야담집 소개 '강간', '간통'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0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등의 연구 역시 조선후기 소설에서 발견되는 권력 구조 속의 젠더화된 성애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는 성애의 주인공들에 대한 풍자 및 계급적 비판 뿐 아니라, 성애 자체를 풍자의 대상으로 제기되는 훼손소설들이 있다. 이 가운데, <오유란전>은 풍류의 일부로서 향유된 양반 남성들의 기녀와의 사랑의 행위 자체를 희화화하면서, 조선 전기의 환상적 판타지의 흔적들을 여지없이 해체시키는 작품으로서 주목된다.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에서 원귀와의 결합 모티프는 <오유란전>에서 인물들의 속임수 속에 재구성되면서 오히려 남녀 간의 생사를 초월한 사랑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희극적인 장치로 기능한다. 또한 낭만적 사랑으로 포장된 양반남성들과 기녀 간의 유희에 대한 희화화 뿐 아니라, 유교적 예(禮) 속에 포장되거나 은폐되었던 섹슈얼리티 자체를 직접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웃음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희극의 요소들(위트·유머·익살)과 달리, 풍자는 ‘조소’를 유발하는데 이는 웃음을 무기로서 사용하고, 그것으로써 작품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과녁을 겨냥한다.⁵⁴⁾ 여기서 겨냥되는 바는 바로 유교 이데올로기의 지지 속에 풍류, 또는 사랑의 가면을 쓰고 향유되었던 쾌락의 실상이며, 그러한 섹슈얼리티를 향유하였던 지배층 남성들의 육체에 대한 전면적 폭로이다. 이는 이생이 오유란의 유도 하에 발가벗은 몸으로 저자거리를 나설 때 드러나는 성기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에서 확인된다.⁵⁵⁾ 풍자하는 주체는 풍자하는 대상에 대해 우월한 태도를 유지하며,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열등한 존재를 경멸적 웃음의 대상으로 공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⁵⁶⁾ <오유란전>

54) M.H. 에이브럼즈, 『문학용어사전』, 최상규 역, 예림기획, 1997, 334면.

55) <오유란전>[국립도서관본], 『조선후기 해체소설선』, 신해진 역, 월인, 1999, 234면. <오유란전>, <변강쇠가>, <절화기담> 등 19세기 소설 속의 성이 놀이의 대상으로서 유희적으로 다루어지고, 금기시되었던 성애가 시각적으로 장면화되고 탈신비화되며 남녀의 육체를 노출시켜 정면으로 응시하는 등, 성에 대한 새로운 시선의 변화를 제기한 논의로 김경미, 「19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성표현관습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9집, 2003, 69-90쪽 참조.

56) 이상섭,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1992, 280-281쪽.

에서 발견되는 풍자의 시선은 양반과 기녀 간의 낭만적 사랑이 지니는 현실적 허구를 보여줄 뿐 아니라, 조선시대 권력층 남성들의 허위의식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성찰이 양반 계층의 내부에서 일어났음을 제기하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한편, 19세기의 또 다른 소설 <절화기담>이나 <포의교집>은 성적인 주체이면서 동시에 윤리적 주체였던 유가적 주체에서 윤리가 후방으로 물러나고, 성애적 주체의 모습이 부각되어 주목되는 작품이다.⁵⁷⁾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외적 규제가 보다 강화되고 특히 결혼 제도 안의 성적 일탈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된 조선후기⁵⁸⁾에 <절화기담>의 순매와 <포의교집>의 초옥 같은 유부녀들은 어떠한 윤리적 자의식 없이 사랑의 행위에 몰두함으로써 기존의 소설적 전형성으로부터 이탈하는 흥미로운 지점을 제기한다. 푸코가 말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권력과 쾌락은 감시와 통제의 메카니즘 속에 서로 충돌하면서 달아나는 일종의 게임을 벌여왔다.⁵⁹⁾ 특히, 비록 순매와 초옥이 평민층 여성들이기는 하였지만 가족 제도 안으로 부터 유출되는 쾌락의 흔적들은 조선후기 ‘에로스’의 승화를 강력히 요구했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외적, 내적 규율을 뚫고 분출되는 욕망의 틈새를 보여주고 있다.

57) 김경미·조혜란, 『19세기 서울의 사랑—절화기담, 포의교집』, 여이연, 2003.

58) 조선후기로 갈수록 간통이나 강간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계층 전반에 걸쳐 강화되었지만, 사대부 남성들은 권력적 이해관계 속에서 범망을 피해가는 반면, 사건의 실질적인 책임이나 처벌은 여성들이 감당하였으며, 특히 사대부 여성들은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요구받았으며 이를 통해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고 사건이 무마되었던 사례들이 지배적이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논의는 장병인, 「조선시대 성범죄에 대한 국가규제의 변화」, 『역사비평』 56집, 2001; 「조선 중·후기 간통에 대한 규제의 강화」, 『한국사연구』 121집, 한국사연구회, 2003. 참조.

59) 푸코, 앞의 책, 63쪽

5. 섹슈얼리티의 이중기제와 조선후기 욕망의 지형도

조선시대 문학(소설) 속에 에로스의 표상은 통시적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는데, 이러한 표상의 변화는 원천적으로 각 시대가 지향한 인식론적 변화를 기반으로 한다. 전기 소설에서 탐색하고 있는 욕망의 본질 및 사랑에 대한 낭만적 상상력은 중기 이후 유교 이데올로기 및 갖가지 사회적 조건들의 개입을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약화되거나 현실적 상상력으로 대체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조선후기로 갈수록 에로스와의 혼인 제도의 분리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사랑이 결혼제도 밖에서 잉여적으로 소비된 현실이 보다 가시화된다. 또한 이 시기에는 과도한 풍류의 향유 속에서 사랑 자체가 희화화되는 시선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18-19세기 조선후기 사회는 유교 이념 속의 쾌락이 다형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흥미롭고도 문제적인 시기이다. 열녀 담론이 다량으로 생산되는 이 시기에는 가족제도 안에 주자학적 이데올로기가 보다 경직된 형태로 드러나는 반면, 양반남성들의 섹슈얼리티는 가족 밖의 풍류공간을 중심으로 보다 풍부하게 향유된다. 이러한 여성의 이분화를 통한 섹슈얼리티의 이중적 작동은 당대 사회가 가부장제를 보다 확고히 존립시키는 것과 에로스의 향유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낸 쾌락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정숙한 기녀가 양반 사대부와의 신분적·성적 위계를 기반으로 한 전근대적 사랑의 히로인이 되는 현상 역시 이러한 사회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다. 한편, 조선후기에는 전대(前代)의 ‘판타지’ 형식을 해체하고 ‘풍자’를 통해 섹슈얼리티의 전복을 꾀하고 있는 소설 작품들에서 확인되듯이, 당대 사회의 외피를 걷어내고 문화의 심층으로 들어가 보면, 신분적 차별성에 따라 배치되었던 문화적 구획이 실질적으로 약화되고 기존의 공식이 와해되는 문화 내부의 역동적인 지점 또한 발견된다. <삼선기>

<이춘풍전>, <계우사> 등 일련의 소설들은 중인층으로 전락하는 양반남성이나 중인층 한량계급의 남성과 기녀가 짝을 이루는 로맨스를 서사 틀로 함으로써, 조선 후기 소설에 지배적인 양반남성과 기녀간의 사랑의 구도를 이탈하고 있다. 사대부계급의 교양 및 유희 문화의 축이었던 풍류가 조선후기에 이르러 중인층 남성 및 기녀 계층으로 확산되고, 그들이 매개자의 역할을 넘어서 스스로 풍류의 주체로 등장하며, 성애의 주인공으로 부상하는 양상은 하위 계급에 의해 발현된 문화적 전복의 징후들이라 할 수 있다.

유교 이데올로기가 정치·문화·윤리의 핵으로 작동되면서도, 그 이면에 다각적인 균열과 틈새, 저항의 지점이 산포되어 있는 조선후기의 이질적인 풍경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표층적으로 유교적 윤리 기제가 전 계층으로 확산되면서 지배력을 획득하지만, 일상의 영역에서 섹슈얼리티는 유교적 예(禮)의 틀과 신분과 젠더 기제의 틈새를 뚫고 다양한 형식으로 발현되고 있다. 사회학자 브라이언 터너(Bryan S. Turner)는 권력 담론과 개인의 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담론의 편재성을 보여주는 것이 그 담론이 전적으로 효과를 발휘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 지적하였다.⁶⁰⁾ 조선 시대 유교 담론은 지배 담론으로서 전근대 사회의 욕망의 발현 형식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였으며, 조선후기에 이르러 그것의 이데올로기적 강제력을 보다 강화하였지만, 그것의 효과는 표층적이고 산발적이면서 불균질적인 모습을 띤다. 하지만 조선후기는 표층/심층, 명분/실제, 가족 제도 안/밖에서 이질적이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작동된 섹슈얼리티의 이중기제가 제도과 일상 전반에 견고한 축으로 뿌리내리는 시기였다. 이러한 전근대 에로스의 공식은 동시대 문화 속에서도 여전히 기억되고 작동되는 욕망의 기제로서 지속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60) 브라이언 터너, 앞의 책, 103쪽.

참고문헌

- 『中庸』, 『禮記』, 『烈女傳』
- 국사편찬위원회 편, 『혼인과 연애의 풍속도』, 두산동아, 2005, 1-284쪽.
- 김경미, 『19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성표현관습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9집, 2003, 69-94쪽.
- 김경미·조혜란 역, 『19세기 서울의 사랑-절화기담, 포의교집』, 여이연, 2003, 1-255쪽.
- 김만중, 『구운몽』, 정규복·진경환 역주,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6, 1-541쪽.
- 김시습, 『금오신화』, 심경호 역, 홍익출판사, 2000, 1-382쪽.
- 김풍기 역, 『옥루몽1-5』, 그린비, 2006, 1-295쪽.
- 라깡과 현대정신분석학회 편, 『우리시대의 욕망읽기』, 문예출판사, 1999, 1-286쪽.
- 박일용, 『조선시대 애정소설-사실과 낭만의 소설사적 전개양상』, 집문당, 1993, 1-473쪽.
- 박일용, 「<만복사저포기>의 형상화 방식과 그 현실적 의미」, 『고소설 연구』 18집, 고소설학회, 2004, 33-58쪽.
- 박일용, 「<이생규장전>의 밀회 장면에서 나타난 환상성과 그 현실적 의미」, 『고소설 연구』 20집, 고소설학회, 2005, 6-33쪽.
-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1-256쪽.
- 서지영, 「조선시대 기녀 섹슈얼리티와 사랑의 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5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2, 291-321쪽.
- 서지영, 「조선시대 중인층 풍류공간의 문화사적 의미- 서구 살롱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95호, 진단학회, 2003, 285-317쪽.
- 신해진 역, 『조선후기 세태소설선』, 월인, 1999, 1-487쪽.
- 유광수, 「옥루몽, 성애표현의 서사적 기능과 은폐된 폭력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집, 2005, 465-503쪽.
- 이상구 역,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1-338쪽.
- 이성혜 역, 『只在堂 姜澹雲 詩集』, 이성혜 역, 보고사, 2002, 1-142쪽.
- 이숙인, 「여성 몸의 유교적 구성- 몸의 주체화를 위하여」, 『전통과 현대』, 1999, 여름호, 58-72쪽.
- 이숙인, 『동아시아 고대의 여성사상』, 여이연, 2005, 1-516쪽..

- 이승수, 「<옥루몽> 소고 1- 남녀지기론의 허실과 여성의 발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0, 183-211쪽.
- 이승환, 「유가적 몸과 소속된 몸」, 『전통과 현대』, 1999, 여름호, 17-35쪽.
- 이화중국여성문학연구회 편,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 이화여대출판부, 2002, 1-367쪽.
- 이혜순·김경미, 『한국의 열녀전』, 월인, 2002, 1-468쪽.
- 장병인, 「조선시대 성범죄에 대한 국가규제의 변화」, 『역사비평』 56집, 2001, 228-250쪽.
- 장병인, 「조선 중·후기 간통에 대한 규제의 강화」, 『한국사연구』 121집, 한국사연구회, 2003, 83-116쪽.
- 조광국, 『기녀담, 기녀등장소설 연구』, 월인, 2000, 1-389쪽.
- 조혜란, 「고소설에 나타난 남성섹슈얼리티의 재현양상」, 『고소설 연구』 20집, 한국고소설학회, 2005, 383-407쪽.
- 최기숙, 「관계성으로서의 섹슈얼리티: 성, 사랑, 권력- 18, 19세기 야담집 소재 '간간', '간통'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0집, 2003, 243-275쪽.
- 최지연, 「<옥루몽>의 여성 인물 형상화와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10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4, 69-90쪽.
- 한국성폭력상담소편,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1999, 1-374쪽.
- 한형조, 「전통 예(禮)의 원리와 기능」, 『전통예교와 시민윤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청계, 2001, 1-339쪽.
- 아니카 르메르, 『자크 라캉』, 이미선 역, 문예출판사, 1994, 1-382쪽.
- 안소니 기든스,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친밀성의 구조변동』, 배은경·황정미 역, 새물결, 2001, 1-320쪽.
- 브라이언 터너, 『몸과 사회』, 임인숙 역, 몸과 마음, 2002, 1-488쪽.
- 조르주 바타이유, 『에로티시즘』, 조한경 역, 민음사, 1989, 1-317쪽.
- M.H. 에이브럼즈, 『문학용어사전』, 최상규 역, 예림기획, 1997, 1-457쪽.
- 미셸 푸코, 『성의 역사 I -삶의 의지』, 이규현 역, 나남, 1990, 1-170쪽.
- 필립 아리에스 편, 『성과 사랑의 역사』, 황금가지, 1996, 1-296쪽.
- 로즈메리 잭슨, 『환상성-전복의 문학』,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역, 문학동네, 2001, 1-271쪽.

볼프강 라트, 『사랑 그 딜레마의 역사』 장혜경 역, 이끝리오, 1999, 1-327쪽.

Pat Caplan ed.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xuality*, London & New York:
Tavistock Publications, 1987, pp. 1-304.

ABSTRACT

Gap between Norm and Desire
—Sexuality in the Novel in *Joseon* Period

Suh, Ji-Young

Pursuit for the eros in human life is one of universal desires that the men have. In the Eastern culture, there is the icon of ideal couple called “a meeting of pungnyujeja(a man of talent and elegance) and vojokusuknyo(a chaste lady with refined manners)”. However, the way the ideal love is realized in real life is differentiated in the historical context, because the ideological and social mechanism which are the constituents of the society get involved in the way the eros is expressed.

In *Joseon* period, it has been said that the sexuality which is the source of human desire was suppressed by the asceticism of confucian ideology. Nevertheless, we can find the traces of desires slipping from the grip of confucian norms in the fictional discourses like novel. This paper tries to illustrate the relation between sexual love and marriage in pre-modern period by analyzing the romance narratives produced in *Joseon* period from the early part, through the middle part, to the later part, finally questing for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way the erotic desire was expressed each period.

Key Words desire, marriage, sexuality, confucian ideology, *giryo*, fantasy

논문투고일 : 2007. 3. 30

심사완료일 : 2007. 4. 20

게재확정일 : 2007. 5. 4